논어 19편 자장 4장 · 쓰기 연습

子夏曰：「雖小道，必有可觀者焉，致遠恐泥，是以君子不爲也。」

이 장의 글자를 문장 순서대로 따라 쓴 뒤, 바로 아래 빈칸에 써 보세요.

子夏曰雖小道必有可觀者焉

致遠恐泥是以君子不爲也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